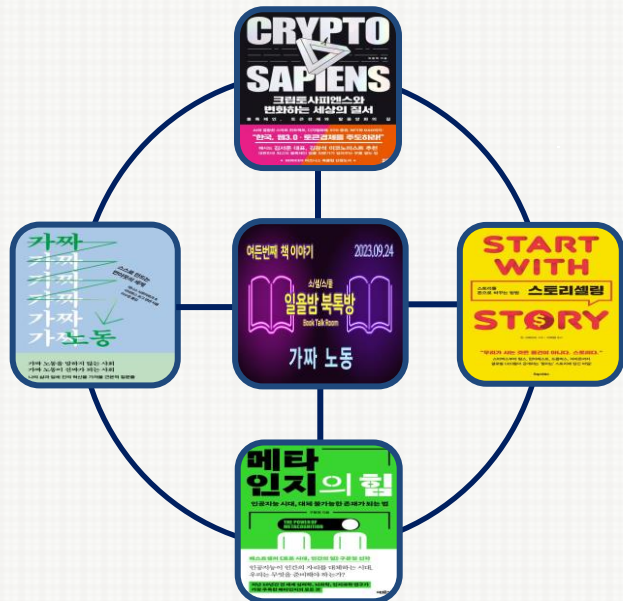


[가짜 노동]을 읽고...

스스로 만드는 번아웃의 세계

데니스 뇌르마크 & 아네르스 포그 옌센 지음
자음과모음(2022.8)

2023. 9. 24 / 최 규 문



“4시간만 일해도 되는데, 왜 8시간씩 일하는가?”



데니스 & 아네르스
(자음과모음, 2022.8)

**스스로 만드는
번아웃의 세계**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진짜 노동을 하고 있는 걸까?”

1부. 사라진 시간 :

- 1장. 지나친 노동량
- 2장. 텅 비어가는 노동
- 3장. 노동의 본질과 변화

2부. 사라진 의미 :

- 4장. 가짜노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 5장. 해결책이 불러온 문제들
- 6장. 남에 대한 모방을 멈추자
- 7장. 우주에서 지구로 복귀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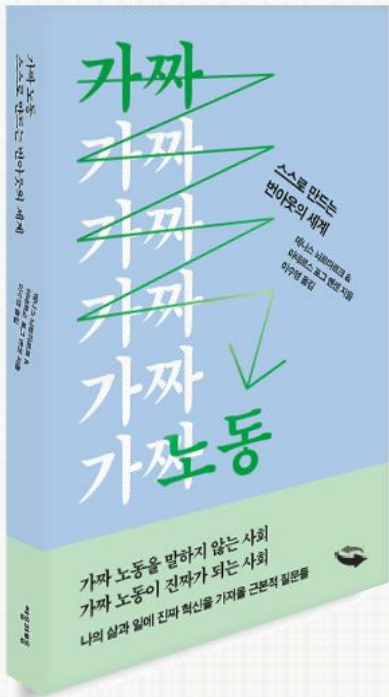
- 8장. 긍정이 지배하는 사회
- 9장. 무의미한 노동시간 줄이기
- 10장. 노동시간에 대한 관념 버리기
- 11장. 사람을 믿자

3부. 시간과 의미 되찾기 :

- 12장. 노동과 인간의 본질
- 13장. 변화를 위한 우리의 전략
- 14장. 관리자를 위한 의미 있는 조언들
- 15장. 가짜 노동 없는 사회

“우리는 왜 그렇게 일을 많이 할까?”

“노동, 문화, 정치, 역사, 사회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노동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관점을 제시한다.”



데니스 노르마크 Dennis Normark



덴마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다양한 인류학 서적들의 저자. 여러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직장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얻었고 그를 바탕으로 현대사회를 통찰하는 깊이 있는 글을 써왔다. 노동, 정치, 문화에 대한 연구와 강연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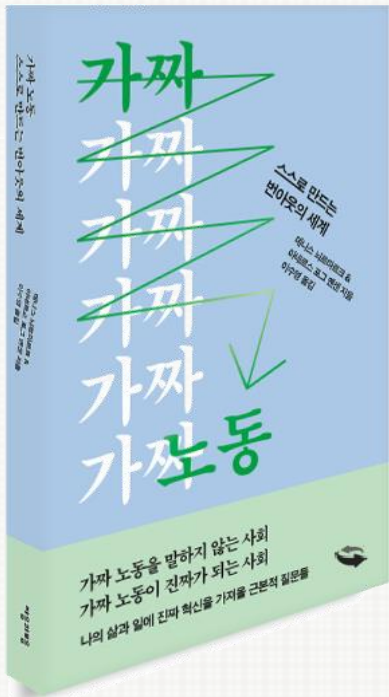
덴마크의 여러 대학교에서의 강의와 연구를 통해 프로젝트 커뮤니티 개념을 다듬었으며, 정치 및 사회 이슈에 대한 글을 쓰는 비평가이자 철학자. 철학적 대화를 통해 내면을 치유하는 여행 안내자로 활동하고 있다.

아네르스 포그 옐렌 Anders Fogh Jensen



“우리는 왜 그렇게 일을 많이 할까?”

‘텅빈 노동에서 벗어나,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더 나은 삶을 누리는 방법!’



가짜 노동 체크 리스트

- [] 회의 참석을 위해 하고 있던 업무를 미룬 적이 있다.
- [] 보고서 분량을 의식하여 불필요한 자료를 추가한 적이 있다.
- [] 자리를 비울 때 언제든지 금방 돌아올 것처럼 모니터를 켜놓는다.
- []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는다.
- [] 할 일을 일찍 마치고 퇴근할 때까지 허송세월한 적이 있다.
- [] 업무 시간보다 야근할 때 일의 능률이 더 높은 것 같다.
- [] 퇴근할 때 눈치가 보인다.

“이 책은 그들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즉 진정한 문제는 조직, 경영, 리더십, 사회 안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많은 이들이 이전부터 품고 있던 막연한 감정에 [가짜 노동]이라는 용어를 제시했다.

이제 독자들은 사회 전체로 보았을 때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일 뿐 아니라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파국적이고 존재론적 낭비인 상황에 대한 개념어를 가지게 되었다.” _서문 중

[1부-1장] 지나친 노동량

▣ 1부/ 사라진 시간

1장. 지나친 노동량

2장. 텅 비어가는 노동

3장. 노동의 본질과 변화



p.29~

#넘치는 여유 시간을 걱정하는 사회 :

- 영국 경제학자, 케인즈 : [우리 손주들을 위한 경제학적 예측] 논문

→ 1930년까지 추세에 근거할 때, “100년 내로 경제적 문제는 해결될 수 있거나 적어도 해결 방법이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결론 하에 “2030년까지 평균 노동 시간은 주 15시간이 될 것이며, 그 시간조차 경제적이기보다는 인간적 필요를 반영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많은 시대에도 고대 인간의 본성은 우리 안에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며 모두 만족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이 필요할 것이다.” (기술과 풍요로 노동이 불필요해진 세상을 전제!)

예상과 너무 다른 현재

- 영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 : [게으름에 대한 찬양] 에세이집

→ 제1차 세계대전 중 엄청난 생산력 증대로 생산 인력이 절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기간 동안 경제는 번영, 1932년 하루 노동시간을 4시간으로 줄이자는 안을 제시했고, 당시 많은 지식인이 동의했다. (실현되진 못했지만...)

노동시간의 단축과 더 나은 삶을 위한 진보

- 벤저민 프랭클린 : “하루에 4시간 노동이면 차고 넘친다”

- 덴마크 철강산업 교섭 주노동시간: 1900년= 60시간 → 1915년=56시간 → 1958년=48시간 → 1976년=40시간 → 1990년=37시간(30년 전!)

[1부-2장] 텅 비어가는 노동

□ 1부/ 사라진 시간

1장. 지나친 노동량

2장. 텅 비어가는 노동

3장. 노동의 본질과 변화



p.69~

#갤럽의 2013년도 노동 시간 관련 조사 :

-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은 일부(13%)인 반면, 가장 큰 집단(63%)은 '무성의' 범주에 들어간다. 일에 아예 관심이 없거나 전혀 전념하지 않는다. 세번째 24%는 '적대적' 부류로, 일터로 향하는 것을 힘들어하며 작든 크든 반항한다!
- 직장인의 21%가 상사로부터 어떤 동기부여도 받지 못하며, 오직 3분이 1만이 기업의 사명을 이해하거나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생각보다 적게 일한다

- 덴마크 로크올 재단 연구 결과 : 노동자들이 주당 평균 39.3시간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스톱 워치 측정 결과 33.2시간을 일할 뿐!
→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일하는지 자신도 모르거나, 일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을 의미! (2008년 금융위기전 생산성 미회복!)

업무와 관련 없는 일과를 보내는 사람들

- 포르노 사이트 : 방문의 70%는 월~금 9-5시 근무 시간중에 일어난다.
- 인터넷 쇼핑몰 : 개인용품 구매가 근무시간 중 증가하고 저녁/주말에 저하
- 가격비교 사이트 : 월요일 대목, 트래픽 90% 이상이 8-4시 사이 발생!
- 미국 직장인들 : 1주일 근무중 평균 8.3시간을 업무와 무관한 곳에 사용!

[1부-3장] 노동의 본질과 변화

□ 1부/ 사라진 시간

1장. 지나친 노동량

2장. 텅 비어가는 노동

3장. 노동의 본질과 변화



p.90~

텅 빈 노동의 네가지 유형 :

- (1) 빈둥거리기 - 아무것도 하지 않는것
- (2) 시간 늘리기 - 뉴스 읽기, SNS, 블로깅, 채팅, 문서 재구성...
- (3) 일 늘리기 - 수리 수선 기일 연장하기
- (4) 일 꾸며내기 - 생산적인 일 대신 뭔가 하는 척 보여주기(서류 들고 배회하기)

'가짜 노동'의 정의 :

- 바쁜 척하는 헛짓거리 노동, 노동과 유사한 활동이지만 무의미한 업무
- 아무 결과나 결실도 내지 못하는 작업, 이런 작업 준비에 투여되는 노동
- 비생산 프로젝트 신입 주기, 보고 회의, 잊어버릴 PT, 실수 못막는 관리 감시...

눈에 보이는 노동, 보이지 않는 노동

- 무대 앞 노동 : 진척도 계량 가능, 일처리 시간당 보수 (예: 버스 운전)
- 무대 뒤 노동 : 무대 앞 노동을 지원, 조율, 감독하는 관리직 업무
- 20세기 단계적 산업화는 무대 뒤 노동을 기하급수적으로 확장시킴
- 컨설턴트, IT전문가, 관리자, 연구자, 경영인, 홍보팀, 지원팀 등등
- 직접 계량할 수 없고 끝나지도 않는 일, 완전통제 불가, 보고시스템 필요
- 대부분 사무직 업무들, 지난 50년간 기술 가속도로 폭발적 증가 초래!
- 자유를 선물해 줘야 할 신기술이 여가시간 대신 더많은 시간 소비를 강제!

[2부-4장] 가짜 노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 2부/ 사라진 의미

4장. 가짜노동을 포기 않는 사람들

5장. 해결책이 불러온 문제들

6장. 남에 대한 모방을 멈추자

7장. 우주에서 지구로 복귀하자

8장. 긍정이 지배하는 사회

9장. 무의미한 노동시간 줄이기

10장. 노동시간에 대한 관념 버리기

11장. 사람을 믿자



p. 117~

가짜 노동을 위한 두 달 :

- 스티브 매케빗(리즈 경영대 교수): [도시에서 빈둥거리기] 저자
- 비디오게임사 홍보 담당팀 임원 출신 /
→ 크리스마스 시즌 6주간 80% 매출, 1년중 연초 두 달은 '노는' 프로젝트!

주어진 시간에 딱 맞게 늘어나는 노동 : "파킨슨의 법칙"

- 영국 해양사학자 파킨슨의 연구 발견 (1955년 이코노미스트) 요약 발표 :
→ "일은 그것의 완수에 허용된 시간을 채우도록 늘어난다!"
- 영국 대형 군함 62척 → 20척으로, 장교가 31% 감소하는 동안 기지 인력은 40% 증가, 행정팀은 78%까지 급증 → 관리직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짐 결론!
- 정부, 잉글랜드 왕실회의(영국 상원으로 바뀜), 동일한 현상 발생 확인!
→ "만일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10시간 주어진다면 그들은 10시간을 사용하겠지만, 똑같은 일에 25시간이 주어지면 놀랍게도 그 일은 결국 25시간이 걸릴 것이다!"

자꾸 늘어나는 관리직, 자를 때는 생산직 먼저

- 4명 직원이 6년간 20명으로 5배 늘었지만 효율성과 이윤은 3배도 안돼!

상사들의 과시 경쟁

- 미국 CEO들의 임금: 일반 직원 평균 임금보다 200배, 효용은 거의 없다!

[2부-5장] 해결책이 불러온 문제들

▣ 2부/ 사라진 의미

4장. 가짜노동을 포기 않는 사람들

5장. 해결책이 불러온 문제들

6장. 남에 대한 모방을 멈추자

7장. 우주에서 지구로 복귀하자

8장. 긍정이 지배하는 사회

9장. 무의미한 노동시간 줄이기

10장. 노동시간에 대한 관념 버리기

11장. 사람을 믿자



p. 155~

사용자가 아닌 시스템을 위한 해결책 :

- 닐스 벤트존(코펜하겐 헤를레우 병원 외과의): 인터뷰 대화
→ 환자 1명에 대한 처방 처리용 IT 시스템(2013년) 입력 위해 시간 허비
- 닐스 크로만(덴마크 암협회) : 코펜하겐 대학병원 의료시스템 운영시 경험 → 환자 1인당 입력 사항 142가지 → 정작 의사가 환자와 대화를 나눌 시간 빼앗김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찾는 세상 :

- 2007년 덴마크 재정기획부 선임사무관들의 일간지 [폴리티켄] 기고:
“우리를 용서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랐어요”
- 오작동하는 공공부문 관리 제어 시도로 [핵심성과지표](KPI) 영국에서 도입, 2년여 실험 후 “계약 경영 체제” 개념이 “주문이행 경영” 모델로 지자체 확산 → 도구를 개선하려는 끊임없는 충동으로 점점 더 많은 목적, 지표, 자료와 개발 프로젝트 덕지덕지 추가, 기관장에 개별적인 계약과 성과급 적용 → 상호작용과 대화 대신 관료적 경쟁으로 귀결, 더 많은 관료제와 형식 절차만 확대!(부조리 노동)

시간이 남아도는 관리직을 경계하자 (2009년 넷플릭스 현장인사담당팀 폐지)

- 넷플릭스 최고인사담당자 패티 매코드 :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기사
“회사 이익을 우선으로 이해하고 추구하는 인력을 신중하게 채용한다면 97%가 제대로 일할 것, 많은 기업이 3%가 일으킬지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사방침을 규정하고 시행하면서 끝없는 시간과 비용을 소모한다.”

[2부-6장] 남에 대한 모방을 멈추자

▣ 2부/ 사라진 의미

4장. 가짜노동을 포기 않는 사람들

5장. 해결책이 불러온 문제들

6장. 남에 대한 모방을 멈추자

7장. 우주에서 지구로 복귀하자

8장. 긍정이 지배하는 사회

9장. 무의미한 노동시간 줄이기

10장. 노동시간에 대한 관념버리기

11장. 사람을 믿자



p. 189~

존재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

- 프리 데리크(덴마크 경영아카데미 강사): 직장 내 교원 수 감소 현상에 대해
“25년 전에는 강사 3명당 뭔가 다른 일 하는 사람이 1명이었는데, 지금은 4명당 3명이 강의가 아닌 일을 하고 있고, 그 수가 점점 늘어나요.”

최악의 시간 낭비를 일으키는 직군 :

- 셸 아르네 뢰비크 (트롬쇠 대학 정치학과 교수) 연구 :
→ 조직들이 특정 관념들을 서로 감염시키고, 업체 유행이 이유없이 한 조직에서 다른 조직으로 번지는 현상 → 성공적인 기업을 모방하는 업계 분위기 때문
- 얀 발란데르(스웨덴 사업가) : “기업이란 십대 청소년처럼 유행에 민감해서 들
판에서 풀을 뜯는 양떼같이 소문이 들리면 우르르 몰려가고 나머지도 달려든다.”

기업의 모방 본능 & 규정을 이용한 책임 회피 :

- 루이제(덴마크 대규모조직 고위 임원) : “내가 공공부문에서 했던 일의 50%는 가짜 노동이었을 거예요. 시스템이 스스로를 위해서 만들어낸 뭔가를 하면서 바빴겠죠. 계획, 정책, 전략... 실수요가 있기 한 건지...”
→ 최악 중 하나는 병가 규정 : 병가가 늘어난다는 지적에 새로운 관리방침을 규정으로 도입 → 기관장 잘못이 아닌 지키지 않은 아랫사람 책임으로 면피!

[2부-7장] 우주에서 지구로 복귀하자

▣ 2부/ 사라진 의미

4장. 가짜노동을 포기 않는 사람들

5장. 해결책이 불러온 문제들

6장. 남에 대한 모방을 멈추자

7장. 우주에서 지구로 복귀하자

8장. 긍정이 지배하는 사회

9장. 무의미한 노동시간 줄이기

10장. 노동시간에 대한 관념버리기

11장. 사람을 믿자

p.213~



리더십 포르노와 전문용어라는 외계어 :

- 마츠 알베손 (룬드 대학 경제학 교수): 과시성, 공허의 승리, 기능의 어리석음
“경쟁이란 모두가 일어서면 누군가는 발끝으로 서게 되고 곧 모두가 발끝으로 서야 함을 의미합니다. 때로 경쟁은 좋은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가져오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많은 공공부분 기관들이 일을 잘하지 못하지만 외부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환상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 개인 걸치레의 대표주자 : SNS 참여, 마케팅 (허위 주장의 무기들)

- 고등교육 학생들의 비판적 분석적 사고력 평가시험 결과 : 2년후 45%, 4년후 36%가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고등교육 팽창은 과시에 불과)

문제 축적, 냉소와 무지, 자존감 저하 :

- 과시성이 가짜 노동을 유발 : 진짜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 비전, 기획, 가치를 담은 이미지를 투사할 수 있지만 진짜 문제를 처리할 수 없으니 내부 상황을 아는 직원들은 냉소하고, 부풀린 자만심은 자존감 저하로 귀결

허위 활동의 미학적 기쁨 :

-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일터에서 자신이 참아낼 수 있는 정도를 생각해보세요. 자신이 실제로 하는 일을 비판적으로 돌아보세요.”

→ 매년 약 250만 편의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지만 84%가 5년간 전혀 인용되지 않는다!

[2부-8장] 긍정이 지배하는 사회

▣ 2부/ 사라진 의미

4장. 가짜노동을 포기 않는 사람들

5장. 해결책이 불러온 문제들

6장. 남에 대한 모방을 멈추자

7장. 우주에서 지구로 복귀하자

8장. 긍정이 지배하는 사회

9장. 무의미한 노동시간 줄이기

10장. 노동시간에 대한 관념버리기

11장. 사람을 믿자

p.236~



부정보다 훨씬 힘이 센 긍정 : - 1970년대는 비판과 저항의 시대!

- 1980년대 들어 저항의 목소리는 줄고 1990년대 들어 사람들은 더 이상 잘못과 악덕에 대한 비판을 통해 사회 개선을 원하지 않았다.

→ '아니오'에 대한 두려움은 '네'에 대한 갈망으로 대체됐고, 비판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남들과 연결되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 (SNS 좋아요 갈망으로 표현됨)

긍정의 첫번째 인과응보 : "더 많은 노동"!

→ "죽 나열된 업무 목록을 놓고 다음 지점으로, 다시 그 다음 자리로 뛰어간다. 그레봤자 마주치는 것은 이미 익숙한 상황뿐, 과거의 모든 불평과 부정은 긍정성과 그게 가져온 군살들로 대체됐다."

- 두번째 귀결은 "우둔함을 낳는다" → 직원 건강을 챙긴답시고 로비에 러닝 머신을 들여놓고 뛰라고 강제하는 기업! (거부하지 못하는 것은 우둔함!)

답이 정해져 있는 가짜 참여 :

- 모두의 의견을 묻는다는 이름 아래 불필요한 회의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
→ 동료들을 포함시켰다고 인정 받고, 나중에 반대나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직장내 정치' 행위일 뿐! → 북유럽의 관습이 되고 있다.

- 이메일 [참조] 수신자 남발: 비난이 나에게만 꽃히지 않게 하려는 의도!

[2부-9장] 무의미한 노동시간 줄이기

▣ 2부/ 사라진 의미

4장. 가짜노동을 포기 않는 사람들

5장. 해결책이 불러온 문제들

6장. 남에 대한 모방을 멈추자

7장. 우주에서 지구로 복귀하자

8장. 긍정이 지배하는 사회

9장. 무의미한 노동시간 줄이기

10장. 노동시간에 대한 관념버리기

11장. 사람을 믿자



p.248~

그 회의에 안건은 없었다 :

- 저자 아르네스의 체험담: 포용적으로 보이려는 심리학자와 협력 프로젝트 관계 회의 참석 : 격식 없는 수다로 시작, 20~30개 논제가 채워질 때 우선순위도 없이 토론 개시, 이를 동안 겨우 4-5개 논제를 토론하다가 결론 없이 마무리!

가짜 휴식 말고 진짜 휴식 : '사무직 근무시간의 40~60%가 회의&이메일'

- 메테(인도주의 목표 NGO 리더)의 최근 한달간 여름 휴가시 업무 집중 경험 : "휴가 중 이따금 반나절이나 잠깐 사무실에 들렀을 때 훨씬 효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제대로 상사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할 일을 지시할 수 있었죠."

회의라는 만성질병 : '무의미한 안건과 동기 부여의 가장 행렬'

- 회의가 계속되는 이유는 회의를 옹호하고 조언하는 수많은 책들이 '인류가 본성적으로 효율적이기를 원한다'는 잘못된 가정에 근거하고 있는 탓!

→ 회의가 직장인에게 여가 타임(미적거리며 노는 시간)이 되어 버린 역설!

→ IH 노르딕 : 회의 시간을 20분으로 줄이고 주 4일만 일함!

근무시간 길이와 생산력의 관계: 스위스 차이스 연구소, 1880년대부터 측정

- 주 40시간 이후 급락, 초과 근무의 이득이 높아진 임금으로 상쇄!

→ 시간을 줄이면 노동의 질이 높아진다: 2014년 IH 주4일 근무제로 증명!

[2부-10장] 노동시간에 대한 관념 버리기

▣ 2부/ 사라진 의미

- 4장. 가짜노동을 포기 않는 사람들
- 5장. 해결책이 불러온 문제들
- 6장. 남에 대한 모방을 멈추자
- 7장. 우주에서 지구로 복귀하자
- 8장. 긍정이 지배하는 사회
- 9장. 무의미한 노동시간 줄이기
- 10장. 노동시간에 대한 관념 버리기

11장. 사람을 믿자

p.271~



진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

- 덴마크 우체국의 사례 : 업무 환경 단순화를 위해 집배원들에게 경로 하나씩만 정해 맡기고 배달 마치면 바로 퇴근 가능하게 했다가, 오전에 일을 끝낸 집배원들에게 새로운 경로를 더 주기 시작하자 집배원들의 속도가 느려지고, 쓰지 않았던 모든 휴식 시간을 다 쓰고, 결국 노동조합을 통해 초과근무 수당을 요구함.

시간 단위 노동의 탄생 : 산업 혁명의 산물

- 이전에 가족 단위 소작농 노동 단위에서 17세기 중상주의가 가치의 위상을 재조정하면서 '시장 가격'으로 정의, 돈의 가치가 시장의 실용성으로 바뀌고,
- 애덤 스미스: 19세기 산업화 이후 노동을 '가치의 원천'으로 간주하면서 사용 가치와 교환가치의 개념을 도입, 상품에 투입된 노동량을 '교환가치'로 정의하여 시간을 노동의 척도로 사용하면서 시작(노동에 투입된 가치 = 노동 시간의 축적)

대기업 사무실에 출몰하는 좀비 :

- 데이비드 벌처버 : 2005년 출간 저서 [산 송장 : 의욕 끄고 영혼 빼고 - 사무실 인생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 에서 가짜 노동을 폭로, 비판!
"현대 기업에서 살아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높은 성과나 계량 가능한 가치 생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적당한 자기 이미지를 찾아내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데 시간을 다 쓰게 되죠."

[2부-11장] 사람을 믿자

▣ 2부/ 사라진 의미

4장. 가짜노동을 포기 않는 사람들

5장. 해결책이 불러온 문제들

6장. 남에 대한 모방을 멈추자

7장. 우주에서 지구로 복귀하자

8장. 긍정이 지배하는 사회

9장. 무의미한 노동시간 줄이기

10장. 노동시간에 대한 관념버리기

11장. 사람을 믿자

p.294~



아무도 읽지 않는 허위 보고서 :

- 줄리(덴마크 정부기관 연구원, 비교 종교학 학위):
- 취업센터 상담 경험 : 내 학위가 어떤 건지 전혀 이해 못하고 상호 시간 낭비만
- 국제개발기금 이사회를 위한 보고서 작성시 아무도 읽지 않는 보고서 작성!
→ 며칠에 걸쳐 보기 좋고 읽기 좋게 신경써서 만들지만 사실상 누구도 제대로 읽을 일이 없는 보고서 작성을 반복!

억지 목표 설정과 허위 절차 :

- 현실은 예측 불가능 / 3년 동안 이집트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사이 이집트 정권이 세 번 바뀌어, 정치 영역 수행 프로젝트의 목표 설정 자체가 의미 없고 실현 불가 →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음!

타성적으로 행해지는 헛짓거리들 : 무의미에도 멈추지 않는 공회전

- 규정은 잘 준수되었다. 모든 절차는 원칙대로 시행되었다 = 면피용 규정들
- 허가된 안전을 파는 수많은 표준 인증 업계의 존재, 기업의 준법 감시팀
- 수많은 보고서와 문서를 수집하고 수백 가지 문항 작성을 요구...
- 평가 산업은 '성과경영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창조한 사람들에 의해 창조된 또다른 헛짓거리 산업, 경영진은 이를 알면서도 상관하지 않는다.

[3부-12장] 노동과 인간의 본질

□ 3부/ 시간과 의미 되찾기

12장. 노동과 인간의 본질

13장. 변화를 위한 우리의 전략

14장. 관리자를 위한 조언들

15장. 가짜 노동 없는 사회



p.319~

우리는 왜 일하는가 : 인류의 기본 상태 확인

- 고대 그리스 : 시민과 노예 시절, 노동은 칭송의 대상이 아님!
- 시민의 특권=여가시간(스콜레) : 토론/강연회= 학교의 기원
- 완전한 인간, 진리적 삶 = 배움
- 기독교 : 달란트 우화 / 주인과 세 노예 (금화 맡긴 이야기)
- 수량을 불린 노예를 칭찬, 땅속에 묻어둔 노예를 탓함.(재능의 발휘 요구)

세상과의 유기적 상호작용 : 헤겔과 칼 마르크스 - 노동 인간 본성론

- 일한다는 것은 곧 인간이 되는 것!
- 노동하지 않는 것은 인간성을 실현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것
- 인간이 환경을 처리하고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신을 체현하는 활동
- 노동은 곧 인간의 내면을 외면화시키고 외부를 내면화시키는 활동!

노동의 동기들 : (1) 생존 (2) 돈 (3) 본질 (4) 적응(의 방식)

- (5) 타인의 인정 : 사회가 내가 한 노동과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
- (6) 자신의 인정 : 가깝고 소중한 이들에게 사랑과 보호를 얻어내는 방식
- (7) 청교도적 노동 윤리 : 막스베버의 청교도주의와 칼뱅주의 → 자본주의 추진의 동력 → 죄의 고백: 구원자로 선택된 자의 증거 = 사업에 성공하는 것!
- (8) 대안의 부재 : 달리 뭘 할지 몰라서 (9) 불안 저지하기

[3부-13장] 변화를 위한 우리의 전략

▣ 3부/ 시간과 의미 되찾기

12장. 노동과 인간의 본질

13장. 변화를 위한 우리의 전략

14장. 관리자를 위한 조언들

15장. 가짜 노동 없는 사회



p.342~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하기:

- 첫번째 제안 : 일하는 척하지 말고 일 끝나면 집에 일찍 가라!
- 매일 출근하지 말자, 일찍 퇴근하면서 저녁에 약속 있다고 거짓말 하지 말자.
- 잠깐 자리 뜬 것처럼 꾸며놓지 말자, 당당하게 선택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자.

이젠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자 :

- 회사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일해야 한다.
- 의사는 직장인 병원이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 변호사는 법무법인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 교사는 특정 학교가 아니라 사회의 미래를 위해 일해야 한다!.

먼저 믿음을 줘야 신뢰가 쌓인다 :

-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 변경 추적 기능을 켜 이유가 없다.
- 동료들에게 할 일을 주고 마칠 때까지 믿고 기다려주자, 동료들 역시 나를 믿어줄 거라고 기대하자.
- 가짜 노동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타인에 대한 모방을 경계한다.
- 시간으로 계량하지 말고, 연장 교육 대신 자기 개발의 다른 방식을 만들자!
- 진짜 일에 헌신하자.
- 우리에게겐 복종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도덕적 책임감을 희석하지 말자!

[3부-14장] 관리자를 위한 의미있는 조언들

▣ 3부/ 시간과 의미 되찾기

12장. 노동과 인간의 본질

13장. 변화를 위한 우리의 전략

14장. 관리자를 위한 조언들

15장. 가짜 노동 없는 사회



p.358~

가짜 노동에 맞설 용기 :

- 줄리 : “결정을 내릴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문서를 요구하는 것을 수시로 보게 됩니다. 특히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요.”
- 모든 가짜 노동의 중대한 요소 중 하나는 관리직이 원래 맡은 업무, 즉 결정을 내리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위치에 스스로 섰더라면 굳이 가짜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이다.

관리직은 왜 가짜 노동을 지속하게 되었나 :

- 제프리 페퍼 교수의 의문 : 2015년 [헛소리 리더십] 출간
- 사기 저하된 직원으로 가득한 노동시장(특히 미국)이 비효율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원인은 주로 경영자의 개인적 이야기뿐인 프레젠테이션, 급성장하는 경영서 세미나, 컨설팅 산업에서 발견된다. 기회주의자와 성공한 경영자가 진부한 유흥을 제공하고 헛소리로 관중을 이끌어온 관행, 똑똑하지만 전혀 증명되지 않은 이론에 관한 책과 세미나 양산 형태의 영향이 크다. (우리부터 사과한다!)

역할과 권위를 받아들이자, 직접 결정을 내리자!

- 관리직의 수는 적을수록 좋다. 비판적 질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 과정이나 시간보다 결과 평가가 중요하다.
- 때론 믿고 맡기는 것도 필요하다. 원한다면 그냥 놀게 하자!

[3부-15장] 가짜 노동 없는 사회

□ 3부/ 시간과 의미 되찾기

12장. 노동과 인간의 본질

13장. 변화를 위한 우리의 전략

14장. 관리자를 위한 조언들

15장. 가짜 노동 없는 사회



p.373~

합리화와 능률 개선에 실패한 이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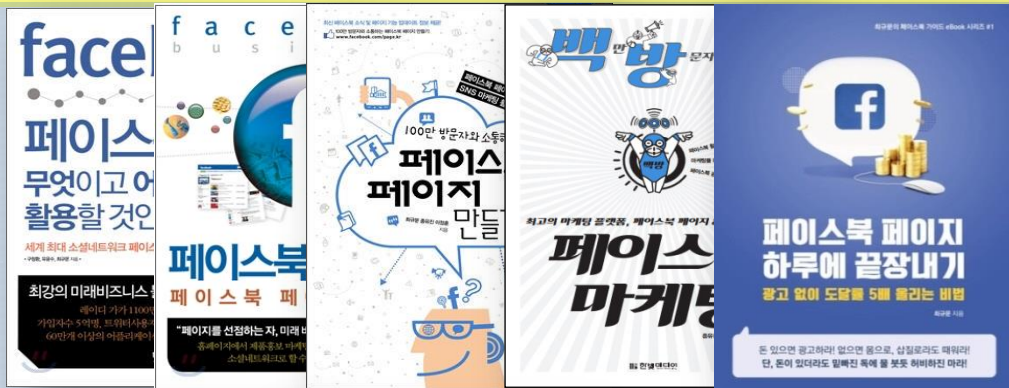
- 100년 전에 선도적 사고를 가진 도시 계획가, 경제학자, 사회학자들이 예상한 미래 세계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유를 찾다가 우리는 '가짜 노동'과 마주쳤다.
- 경제시스템과 우리 문화의 전제와 편협한 근거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 무대앞 노동이 사라지고 공산품이 쇠락하는 시기를 문화가 따라잡지 못하고
- 무대 뒤 노동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는데도 시간과 생산력 사이 상관관계를 여전히 믿는 신화에 빠져 → 일이 소명이고 일의 부족을 금기시하는 문화 속에 살기를 고집하며, 좌파와 우파 모두 '신화에 기댄 정치체제'를 지지한 탓!

가짜 노동으로부터 우리의 시간을 해방해야 할 때 :

- 부조리한 세상이지만 그런대로 꽤 잘돌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반론에 대해...
- 알지만,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우리 저자 둘만은 아니다!
- 인류는 더 발전하고 발명해야 한다. 러셀의 권유에 따라 놀이와 여가를 위한 시간을 허락하고, 표면적 사고보다 깊은 사고를 촉진해야 할 때다.
- 폭발하는 인구 증가와 기후 재난은 인류에게 닥친 거대한 도전이다, 이제 가짜 노동으로부터 시간을 해방시켜 우리 자신의 자기 개발에 쏟아야 한다.
- "생각하고 놀고 시험해볼 공간과 자유를 줘야 한다."

가짜 노동자가 되는 교육은 접고,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하자.
그리고, 우리 일과 삶의 의미를 되찾자!!

친구 맺어요!



최규문
 소셜네트워크코리아 대표
 010-2216-8775
letsgo999@gmail.com
<https://j.mp/choistv>



저서

- **고객관리 자동화 하루에 끝내기**(2021, PDF-Book)
- **카카오 메시지 마케팅**(2020)
- **유튜브 상위 노출의 모든 것**(2019)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통합 마케팅**(2018)
- **페이스북 페이지 하루에 끝장내기**(2017, eBook)
- **백만 방문자와 소통하는 페이스북 마케팅**(2016)
- **100만 방문자와 소통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만들기**(2012, 한빛미디어 / 개정판 2013)
- **페이스북 비즈니스: 페이스북 페이지 완전정복**(2011)
- **페이스북 무엇이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2010)

